



그림책을 읽어 줄 때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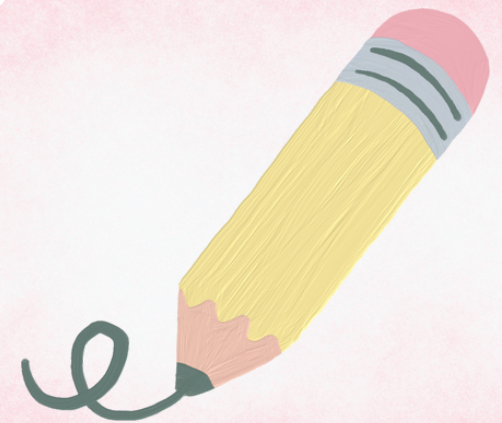
그림을 꼭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림책의 그림은 설명을 듣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보고 느끼도록 열려 있는 장면입니다.

부모는 말해 주는 사람보다,
함께 바라보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모르는 단어는 바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모든 뜻을 풀어주어야
할 것 같지만, 자녀는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천천히 이해해 갑니다.

필요할 때만 짧게,
지금의 경험에 맞게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은
‘정답 없는 말’로도 충분해요.



“왜일까?” 대신
“음, 이런 느낌이네.” “이 장면은 조용하다.”
느낌을 말해 주는 한 문장이
자녀의 생각을 열어 줍니다.

엉뚱한 대답은 틀린 게 아니라
‘자녀의 생각’입니다.



부모가 예상하지 못한 답이 나와도
바로 고쳐주지 않아도 됩니다.

“아,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 한마디가
자녀의 생각을 계속 말하고 싶게 만듭니다.

표현을 많이 하려고 할수록
부모는 지치게 됩니다.



글이 단순한 책이라고 해서 매번 새롭게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익숙한 말과 톤이 자녀에게는 안정감을 줍니다.

책 읽기의 상호작용은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함께하는 경험’입니다.



완벽한 설명이나 풍부한 표현보다,
자녀 옆에 앉아 함께 페이지를 넘기고
함께 멈추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은 자녀에게 말하고 싶어지는
관계의 기억으로 남습니다.